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 후 태도·행동 변화에 대한 만족도

- 숙대생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Degree of Interest to Manners Education before and
Attitude and Behavioral Change Satisfaction of Manners Education
after for Women's University Student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정 우
강사 김 연 화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Jung Woo Lee

Lecturer : Yeon Hwa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조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n the degree of interest of manners education before and attitude and behavior change satisfaction of post-manners education for Women's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518 subjects, who we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tudents in November, 1996.

The subjects were analyzed by Cronbach's α , Frequency, Percentage, Mean, Anova,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general tendency of students' degree of interest of manners education before for Women's University Students was high. 2) Attitude and behavioral change satisfaction of post-manners education was some high. Among the variables, individual life manners, family relations manners, job manner, and wedding ceremony were some high then the other manners areas. 3) The variables of the positive influences for students attitude and behavioral change satisfaction of post-manners education were degree of interest of manners education before, mother's age, grade, major, university life-satisfaction, and mother's job, negative influence variables was family life-satisfaction. 4) The intermediated variable of attitude

and behavioral change satisfaction of post-manners education was degree of interest of manners education before and university life-satisfaction.

We hope this study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manners education model in university. We also expect further studies on university manners education with precise scale and sampling.

I. 서 론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는 가족간의 양보·협동·예의범절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으나 최근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간 친척간의 상호작용 및 접촉이 소원해지므로서 청소년들의 초기사회화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삶에 관한 의식에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예컨대 청소년들은 양보나 예의를 갖추기보다는 불편은 참지 못하게 되어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가족구성원간에 연대의식과 결합력은 약화되고 부모자식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정 및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점차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서의 혁명적인 발전이 계속될수록 도덕적인 위기 현상들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진문화된 의식을 다스릴 기본적인 도덕적인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팽창 및 도시화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집단들은 더 이상 세대간의 가치 전승을 그들의 의무로 고려치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본 받아야 할 가치를 전수할 순기능적 임무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인 윤리·도덕·인격·예절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학교교육에 기대하게 되었고, 실제로 일부 교과 내용에는 포함되어서 교육하고는 있으나 한국사회의 입시위주의 과도한 지식편중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지식을 실천에 이르도록 예절을 제대로 지도·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知·情·義를 고루 갖춘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한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은 사회경제적·교육적 여건으로 인하여 청년기가 지나치게 연장되고 성인으로서의 자아정체

감의 정립이 유보되어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황경식, 1995).

그러나 이들은 미래의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으로 우리사회에서 중산계층을 형성하여 국가의 모든 사회·정치·경제 및 문화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관심 등은 그들의 교육관·가정관 및 민족 생활문화관 등 다양한 견해를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자 및 훈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행동은 의식적·무의식적(意識的·無意識的)간에 생활문화를 전수하는 문화전수자의 한 몫을 담당할 때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정지영 외, 1996; 김정옥, 1994).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예절이라고 하면 진부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며 거리를 두고 경원시 하면서 서구적인 예법을 찾고 배우려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전통적 예절의 근본정신은 길러 주면서 실천적 예절교육의 내용을 현대사회생활에 적절하도록 조정하여 지도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주의에 가치를 두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본적 가치(人本的 價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통하여 신·구와 동·서양 문화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바르게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는 몇편(장경선, 1992; 정정순, 1995; 김정애·지금수, 1992; 김정신·노은호, 1996)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학생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몇몇 연구가 있지만, 가정관리 실습관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이정우·이미

선, 1985), 가치관 연구(이두평, 1987)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 비교연구(이길표, 1994), 전문대학생의 예절에 관한 실태 연구(정지영 외, 1996; 장영, 1995) 및 실제 생활예절 수강 여대생들의 생활예절에 대한 관심도와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이정우·김연화, 1996)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생활예절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전 관심도와 수강후 행동변화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생활예절 교육의 목표나 내용, 구체적인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해 이를 반영함으로써 가정대학 개설의 교양과목인 생활예절¹⁾ 교육의 활성화와 대학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예절의 본질과 기능

예절은 예의범절(禮儀凡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인간생활의 규범으로, 예는 안과 밖을 이어주는 門(홍승직 역해, 論語, 禮即門也)과도 같이 생활을 보다 명랑하고 생동감 있게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예절은 남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약속(이정우 외, 1996)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척도가 된다. 이청림(1992)은 예(禮)는 인간이 가진 순수한 감정과도 상통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채널을 통해 겉으로 나타난 의식의 작용이라고 하였다. 황정숙(1992)에 의하면 인간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마음자세와 행동이 습관화 된 것이라고 보았다. 김득중(1997)은 예절이라 함은 무리 지어 사는 사람들이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관습을 통해 하나의 공동된 생활 방식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규범이라 하였다.

한편, 서양의 프리이(Free)는 서구 사람들의 예절이란 즉 'etiquette, courtesy, good taste with other's'의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라 하여 친절과 공손을 의미하였다. 또한 포스트(Post)는 "배려와 친절에 바탕을 둔 행동의 규범"(박홍석 역, 1991)이라 하였으며 보이킨(Boykin)은 etiquette는 친절, 공손, 공명정대한 정신, 타인의 의견에 관대함, 자제심, 성실한 마음과 적당한 유머, 자존심, 상식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김영만 편역, 1989)고 하였다.

따라서 동·서양 모두 예절의 본질은 원활한 공동생활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며 그 바탕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재된 실체와 이를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격식의 조화라 할 수 있다.

예절의 기능에는 대내대자적기능(對內對自的作用)과 대외대타적활용(對外對他的活用)의 기능이 있다. 대내대자적기능이란, 스스로 사람다움을 지니기 위해 자기 관리를 함을 의미하며, 그 본질은 정성스런 마음이다. 자기관리의 요령으로는 자신을 속임 없이 정직해야 되고 정성스레 예절을 지키며, 홀로 있을 때라도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대타적활용이란 남과 함께 지내는 대인관계를 의미하며 대인관계시의 예절에는 자기 내면을 다스리던 예절을 밖으로 타인을 대할 때와 같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령은 상대를 편안하게 대하며, 그 본질은 어른을 공경하고 자기를 속임이 없

1) 유영주·이정연(1995), 가정학 원론, 하우, pp.226-229에 는 가정학과 사회윤리에 대한 학술대회(1992, 1993)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에 가정학은 윤리(ethics)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가정학과 윤리의 관련성 문제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Grise와 Shaw(1980)의 정의에 따르면, "윤리란 철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이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했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생활의 질 향상을 그 목표로 하는 가정학의 본질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또 윤리는 사실에 입각한 목표와 가치 있는 목표를 결합시키는데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게 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가정학과 윤리의 관련성은 더욱 명백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정학 관련학과가 없는 대학은 교양학부에서 개설한다 하더라도 점차 가정대학의 교양과목으로 확대됨이 적절하다고 본다.

는 양심(良心)과 함께 사랑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인류애(人類愛)로 발전하게 된다(김득중, 1997; 이정우 외, 1996). 그리고 화(和)를 근본으로 하는 예(禮)는 사회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 사회통합(社會統合)의 기능과 정체의식(正體意識)의 증대의 기능이 있다(박성진 편, 1997).

첫째로, 예(禮)의 사회통합(社會統合)의 기능이란 예(禮)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때 사회내 각 부분들의 관계는 균형을 이루고 사리(事理)에 맞게 행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태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 가족과 사회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어떤 지침이나 요구 및 도덕적 양심의 성격과 요소를 다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고 문호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정신적·심리적 연속성은 물론 윤리적 일관성을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해주는 현행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에 대한 가치부여를 가져오게 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룩한다. 둘째로, 예(禮)는 자아정체감(自我正體感)을 증대(增大)시키는 주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의 개인적 기능 역시 자기수련의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과 의식구조를 조화시키고 개인의 행동을 조화시키며 개인이 행하는 의절(儀節)을 조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조화된 개인이 사회에 무리 없이 적응하고 고립감, 자기유리(self-estrangement) 상태에서 인간성을 회복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의식은 현대인의 주요 심리 상태이며 현대사회의 병리인 무기력·무의미·무규범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송복, 1989)고 하겠다.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절의 기능은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사람다워짐과 자아정체감을 증대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도 원만히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2. 대학생의 특성과 예절교육

청년기는 초기와 후기로 나뉘며, 대학생시기는 인생주기에서 생활교육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진

청년 후기로서 그 개념은 문화적 배경이나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크루즈(cruze)는 일반적으로 미혼의 젊은이로써 아직 완전한 성인이 져야 할 책임을 지고 있지 아니한 연령층이라 하였는데(김정애·지금수, 1992),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분리와 독립이 더욱 강화, 완성되는 시기로서 부모들의 의견이나 가치관 보다 자신·동료·선배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 보다 강해진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토대 위에서 거부하거나 수용하기도 하는데 발달심리학에서 보면 청소년의 정체위기(identity crisis)를 겪으며 자아 정체성 확립을 하는 시기이다(황경식, 1996). 에릭슨(Erickson)은 청년기를 성인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심리학적 대기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중에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정체의식의 위기를 맞게되며 심리적 발달 단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동일, 1989).

따라서 이 시기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기르며 자제력과 책임감을 발달시키고 자기의 행동과 판단에 여유를 가져야 하므로 도덕적 기준의 설립과 예절 교육으로 올바른 자아개념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정애·지금수, 1996)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발전에만 급급했던 기성세대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간에 문화지체로 인하여 우리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예의범절을 가르치지 못하였으며, 교육수준이 신분상승과 출세로 이어지는 한국적 현행 교육제도하에서는 예절교육이 어디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생활예절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강전 관심도와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 및 행동변화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대학의 예절교육 및 관련연구

1) 대학 예절교육의 실제

대학생들의 예절교육의 경우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윤리 및 가정 과목등 교과목의 일부로 또는 제 6차 교육개

학의 일환으로 인성 교육의 계획에 따라서 특강 또는 일부학교에서는 생활관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과정의 예절교육을 일시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도덕성이 발달해 가는 것은 아니며 습관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난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관리하며 남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윤리 및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1989년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 대학의 경우 교양 필수과목이던 국민윤리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서, 새로운 관심을 모으는 교양과목으로서 생활예절 과목이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이길표(1994)의 연구에서도 규범교육이 익혀볼 경험이 적었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가정생활교육, 실천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교양과목을 통해서라도, 가정생활규범교육의 부재로 인한 생활문화를 재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의 예절교육은 전문대학의 여성교양과, 비서학과 등에서는 교양선택, 전공선택, 전공필수과목으로 '생활예절', '생활예절실습', '다도' 등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 일정자격자에게 '예절지도사 자격증'을 주고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은 점차 사회교육·학교·유치원 등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4년제 대학의 경우 초기에는 주로 몇몇 여자대학교(성신, 숙명)에서만 개설되었는데, 조사대상학교인 숙명여대의 경우 1992년 1학기에 개설된 이래로 꾸준히 학생 참여율이 매우 높은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8년 현재까지 고려대, 청주대, 대전대에서 '생활문화와 예절', '현대사회와 예절', '실천예절', '예론', '가정생활과 예절', '사회생활과 예절' '현대인과 국제매너' 등으로 학교에 따라 교양선택, 교양필수로 2학점 또는 3학점단위로²⁾ 대체로 가정대학 주관 하에 개설되어 오고 있다. 초기에 여자 대학교에서만 개설되던 것이 근래 남녀 공학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점을 볼 때, 생활예절이란, 남녀 불문하고 나이 든 계층만이 아닌 젊은 세대에도 중요하며 필요한 분야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호응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 하겠다.

본 조사대상 대학의 경우 생활예절 수강생은 예의 기본정신을 터득하여 나를 가꾸고 남을 배려하며 존경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대화예절, 관혼상제, 가정·학교·직장생활예절, 여가예절, 다도 등 생활전반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절을 습득케 함으로서 이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개설되었다.

한편, 국내의 예절서적의 내용으로는 유교에 영향을 받은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예절의 의미, 본질과 함께 개인생활, 가정의례부분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서양의 예절서적에는 의사소통, 식사예절, 사교예절, 시민윤리 등이 주로 내포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에게는 한국적 전통예절의 근본정신을 일깨우면서 시민 사회,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자신을 적응·관리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육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예의 기본정신을 터득하여 다가올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예절을 습득하게 하여 활력 있고 원만한 직업인·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예절의 근본정신과 의미를 알게하고, 인간관계, 개인생활(마음가짐과 몸가짐, 기거동작 등), 의사소통, 가정생활, 학교·직장생활, 사교, 의·식생활, 가정의례, 세시풍속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예절을 현대생활에 적절하게 구성하여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2) 전문대학 여성교양과 - 생활예절, 다도 각각 전공선택, 2학점 2시간, 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생활문화와 예절, 교양선택, 3학점 3시간
 고려대학교 - 현대사회와 예절, 교양선택, 2학점 2시간
 성신여대 - 예론, 3학점 3시간,
 청주대- 현대인과 국제매너, 2학점 2시간
 대전대학교 - 실천예절, 교양필수, 2시간 2학점, 가정생활과 예절, 사회생활과 예절, 국제생활과 예절, 가정의례는 각각 교양선택, 2시간 2학점.

2) 대학의 생활예절 관련연구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것은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는 종종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고, 가정교육이나 가치관 연구 등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두평(1984)의 연구결과 대학은 교양을 넓히며 인격을 도야하는 곳(49.1%)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정 윤리관 중에서 경로사상(44.2%)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또한 사회에 대해 성인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억압배제, 성인들의 모범적인 생활의 요구는 높게 나타났다. 박계홍(1989)의 대학생 자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전통문화와 과거 조상들의 생활양식에 대해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길표(1994)의 연구에 의하면 기성세대나 대학생 모두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경향이였으며 가정규범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부모의 과잉보호나 입시위주의 교육, TV 매스컴의 영향,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교육시간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정지영 외(1996)는 전문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개인적 특성·연령·학년·성·대학진학과과정·전공계열·취업경험등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예절에 대한 의식과 실천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생활 영역의 의식 수준이 특히 높은 것은 전체적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와 직업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바르게 익히는 것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례생활영역의 예절교육이 수신이나 의·식생활 예절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른들에게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부족하기에 이 분야의 교육이 대학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경순(1996)은 신세대들의 신선한 감각과 진취적인 순발력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중요한 자원이기 는 하지만 전통예절 계승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통예절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신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전통예절을 실천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 바르게 전수해야 하며 학교

교육에서는 기본예절교육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도와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정우·김연화(1996)는 대학의 생활예절교육의 실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수강생 대부분은 생활예절과목이 필요(99.2%)하다고 하였으며 실습을 겸한 강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혼례·직장예절 및 사교예절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보였으나 혼례·상례 및 제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통적 의미를 살리면서 이해하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글식 표기로 바꾸고 내용도 현대식으로 변형시켜 지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수강전에 비해 수강후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수강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수업참여태도가 성실할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수강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수강후 수강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학교관련변수가 수강만족도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관한 선행연구는 몇편 있다 하여도 거의 실태조사 정도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성역할 태도, 학교생활만족도, 수업태도, 가정생활만족도 등의 변인을 채택하여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와 수강후 태도 및 행동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은 수강생들의 생활예절에 대한 수강전 관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배경변인은 수강생들의 수강후 태도 및 행동변화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수강생들의 수강후 태도 및 행동변화만족도에 미치는 제 변인의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수강생들의 배경변인, 수강전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선정

- 1) 성역할 태도는 Bem의 척도를 선행연구에서 수정·보완한 30문항으로($\alpha=.84$)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적이다. 수업참여태도($\alpha=.92$)·학교생활만족도($\alpha=.72$)·가정생활만족도($\alpha=.66$)는 선행연구(숙대 강의 평가서, 1996)를 토대로 재구성 하였으며 13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수업참여태도는 성실하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alpha=.92$)는 주교재의 강의 교과내용(이정우 외: 1996)을 중심으로 각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대한 수강전 관심도가 높다고 본다.
- 3)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 및 행동변화 만족도($\alpha=.94$)는 주교재의 강의 교과내용(이정우 외, 1996)을 중심으로 각 2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대한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숙대 교양과목인 생활예절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요인분석과 신뢰도(Cronbach' α)를 검증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보완·수정하여 본 조사는 1996년 11월28~12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하여 부실 기재된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 51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여, Cronbach' α ,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관련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독립변인	구 분	빈 도(%)
계 열	인문사회대	242(47.0)
	이과대	126(24.5)
	가정대(가정관리학과제외)	84(16.3)
	예체능대	63(12.2)
	계*	515(100)
학 년	1학년	149(28.8)
	2학년	195(37.6)
	3학년	61(11.8)
	4학년	112(21.7)
	계*	517(100)
모의 연령	44세이하	85(16.4)
	45-49세	226(43.6)
	50세이상	207(40.0)
	계*	518(100)
모의 학력	중졸이하	98(19.3)
	고졸	271(53.5)
	전문대졸이상	138(26.6)
	계*	507(100)
모의취업여부	취업	183(36.3)
	비취업	321(63.7)
	계*	504(100)

*빈도수가 다른것은 missing data 때문임.

2. 수강생의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

대학생들의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행동

변화 만족도는 1점에서 5점의 범위를 갖는데, 수강 전 관심도의 전체 평균은 3.14점으로 중간점 이상이며 비교적 생활예절 수강전에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개인생활예절(3.42)과 가정생활예절(3.42), 사교예절(3.36), 관례·성년례(3.35), 직장생활예절(3.29), 의·식생활예절(3.29), 의사소통예절(3.19), 인간관계예절(3.16), 일상·여가생활예절(3.06), 연중행사·세시풍속(3.01), 상례(2.93), 제례(2.77) 순으로 나타났다.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전체평균이 3.4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수강전 관심도 보다 더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수준은 개인생활(3.70), 직장생활예절(3.64), 가정생활예절(3.58), 혼례(3.53), 의사소통예절(3.51), 사교예절(3.51), 의·식생활예절(3.50), 인간관계예절(3.49), 학교생활예절(3.42), 상례(3.38), 일상·여가생활예절(3.37), 관례·성년례(3.37), 연중행

사 세시풍속(3.30)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학생들은 가정생활, 개인생활, 사교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예절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가짐, 마음가짐, 인사, 기거동작 등의 개인예절과 직장예절, 가족속에서의 예절, 혼례에 대한 예절이 비교적 수강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자신의 수신예절(修身禮節)과 가족간의 예절, 다가올 직장생활과 혼례에 대한 수강후 태도·행동변화에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례, 제례는 수강전 관심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종교에 따라서는 간소하게 치뤄지기도 하고 어른들이 주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생활예절 수강 후에는 상·제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조문예절의 필요성 등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수강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

수강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
 배경변인 전체가 수강전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은 6%로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생활 만족도($\beta=.11$)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 일수록 생활예절에 대한 수강전 관심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관심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수강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

수강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수강후 행동변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업참여태도($\beta=.37$), 학교생활만족도($\beta=.18$), 학년($\beta=.15$), 모의 연령($\beta=.13$) 및 가정생활만족도($\beta=-.15$)로 나타

<표 2>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

내 용	변 인	
	수강전 관심도	수강후 태도· 행동 변화만족도
	평 균	평 균
① 예절의 의미·인간관계 예절	3.16	3.49
② 개인생활예절	3.42	3.70
③ 의사소통예절	3.19	3.51
④ 가정생활예절	3.42	3.58
⑤ 일상생활·여가생활예절	3.06	3.37
⑥ 학교생활예절	3.14	3.42
⑦ 직장생활예절	3.29	3.64
⑧ 사교예절	3.36	3.51
⑨ 의·식생활예절	3.29	3.50
⑩ 관례·성년례	3.35	3.37
⑪ 혼례	3.21	3.53
⑫ 상례	2.93	3.38
⑬ 제례	2.77	3.18
⑭ 연중행사·세시풍속	3.01	3.30
전 체	3.14	3.46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

독립변인	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	
	b	β
계열(인문사회대)	.07	.06
계열(이과대)	.12	.10
계열(예체능대)	-.10	-.06
학년	-.01	.01
모의 연령	.01	.09
모의 학력	-.02	-.07
모의 취업여부(1)	.01	.01
성역할태도	-.04	-.03
수업참여태도	.04	.05
학교생활만족도	.08	.11*
가정생활만족도	.07	.08

상수 = .19
R² = .06
Adjusted R² = .04
F 비 = 2.46*

가변인(dummy variable)처리.

계열 : 인문사회대(1)=d1 이과대(2)=d2

가정대(3)=d3 근거집단 예체능대(4)=d4

모의 취업여부 : 유 : (1) 무 : (2) 근거집단

*P < .05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수강후 태도·행동변화만족도

독립변인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	
	b	β
계열(인문사회대)	.05	.05
계열(이과대)	.02	.01
계열(예체능대)	.08	.05
학년	.08	.15***
모의 연령	.01	.13**
모의 학력	.01	.03
모의 취업여부	.09	.08
성역할태도	-.04	.03
수업참여태도	.28	.37***
학교생활만족도	.12	.18***
가정생활만족도	-.12	-.15**

상수 = 1.38
R² = .23
Adjusted R² = .21
F 비 = 10.61***

p<.01, *p<.001

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3%로 나타났다. 즉, 수업참여 태도가 성실한 학생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연하면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가족간의 대화의 내용이 원만하지 못하고 서로 소원하기에 제대로 생활 예절교육을 지도받지 못하였으나 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신을 살펴 볼 기회를 갖게 되어 수강후 태도·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년이 높을수록 수강후 태도·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진출이나 결혼을 앞둔 시기라서 현실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연세가 많을수록 수강후 태도 행동변화 만족도가 높은 것은 어머니의 연세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생각을 지녀 가정에서 규범, 예절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또한 어머니의 연세가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도 높아져 사회진출 및 결혼과 연결지어 평소에 어머니로부터 예절 지도를 받은 것에 더하여 학교에서의 생활예절 수강이 보탬이 된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업참여태도가 성실 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이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 행동변화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5. 수강생의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배경변인과 수강전 관심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수강생의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생활예절에 대한 수강전 관심도($\beta=.47$), 수업참여태도($\beta=.34$), 학년($\beta=.15$), 가정생활만족도($\beta=-.15$), 학교생활만족도($\beta=.12$), 모의연령($\beta=.09$), 모의 직업여부($\beta=.08$)가

〈표 5〉 수강생의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		
	b	β	
수강전 관심도	.47	.47***	R ² = .44 Adjusted R ² = .42 F 비 = 25.01***
모의취업여부(1)	.10	.08*	
학년	.07	.15***	
가정생활만족도	-.12	-.15***	
학교생활만족도	.09	.12**	
모의연령	.01	.09*	
수업참여태도	.26	.34***	
상수	.31		

***P<.001 **P<.01 *P<.05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4%였다. 즉, 수강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가정생활만족도는 낮을수록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가정에서 예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수강후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바람직한 자녀의 행동은 어릴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격려받으며 습관들여져야 하는 것이다(홍숙자, 1998). 그러나 부모가 그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가르치는 의도적·무의도적인 생활 교육인 가정교육(지영숙, 1990; 서병숙·왕석순, 1996)은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고 습관화 되지 못하였으나 학교에서 생활예절교육을 통하여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를 살펴 볼 기회를 갖게 되어 수강후 태도·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생활예절 수강후에 더 예절교육에 대한 태도·자신의 행동변화에 만족도가 높아짐을 볼 때 대학에서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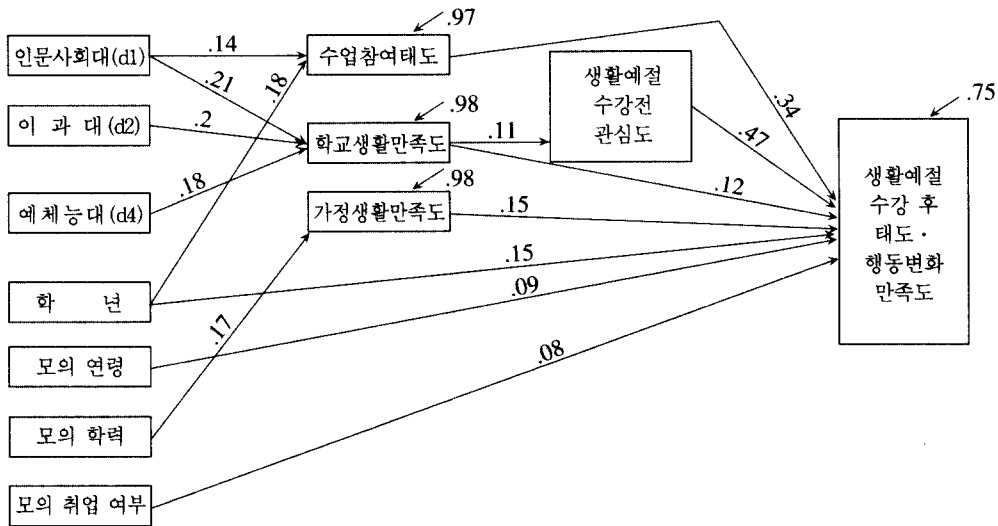
또한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에 는 무엇 보다 수강전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관심도

가 가장 영향력이 크며, 다음으로는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할수록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른 요인보다 학생 자신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담당교수와 학교에서는 교과목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수강생의 배경변인·생활예절 수강전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간의 인과관계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인과관계를 구성했으며,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강전 관심도($\beta=.47$), 수업참여태도($\beta=.34$), 학년($\beta=.15$), 학교생활만족도($\beta=.12$), 모의연령($\beta=.09$), 모의취업여부($\beta=.08$), 가정생활만족도($\beta=-.15$) 등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인문사회대 수강생들은 수업참여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 수강전 관심도를 매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인문사회대 학생들은 가정대학생보다 수업참여태도가 성실하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에따라 수강전 관심도가 높아지고 수강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가정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즉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에따라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를 높여 주었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 경우, 수강전 관심도를 매개로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만족도가 높았다. 즉,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생활예절에 대한 수강전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 수강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 행동변화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학교관련 변수는 매개변인 즉, 학교생활만족도와 수강전 관심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수강후 태도·행동변화만



<그림 1> 인과 모형

<표 6> 인과효과

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효과	
인문사회대(d1)	.06	.	수업참여태도 경유 : .04 학교생활만족도 경유, 수강전관심도 경유 : .01	.05	.00
이과대학(d2)	.01	.	학교생활만족도, 수강전 관심도 경유 : .01	.01	.00
예체능대(d4)	.02	.	학교생활만족도, 수강전 관심도 경유 : 9.82	9.82	-9.8
학년	.18	.15	.	.15	.03
모의 연령	.18	.09	.	.09	.09
모의 학력	-.05	.	가정생활만족도 경유 : .03	.03	-.02
모의 취업여부(1)	.11	.08	.	.08	.03
수업참여태도	.32	.34	.	.34	-.02
학교생활만족도	.25	.12	수강전 관심도 경유 : .05	.17	.08
가정생활만족도	-.05	-.15	.	-.15	-.20
수강전 관심도	.52	.47	.	.47	.05

*pearson's correlation 계수

족도에는 학생의 학교생활만족과 생활예절에 대한 수강전 관심도가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생활예절 수강생들은 생활예절에 대해 수강 전에 비교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는 개인생활예절, 가족간의 예절, 다가올 직장생활과 혼례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상례, 제례는 수강전에 관심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지만 수강후에는 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가 비교적 높아졌다. 실제 이정우·김연화(1996)의 연구결과 생활예절 수강생들은 99.2%가 생활예절은 교양과목으로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82.6%가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와 연결지어 볼 때, 이는 대학에서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수강생의 수강전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생활 만족도임이 검증되었다. 즉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생활예절에 수강전 관심도가 높으며,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강생들은 생활예절에 대해 수강전에 관심이 높았으며, 수업태도가 성실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수강후 태도·행동변화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고학년인 경우 졸업과 혼인을 앞둔 시기로 실생활에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되므로 졸업예정생을 위한 직장·생활예절교육 program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수강후 태도·행동변화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수강 후 태도·행동변화만족도가 높은 것은, 연령이 높으신 어머니들은 어렸을적에 가정규범을 배워왔기에 자식에게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전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길

표(1994)의 연구에서는 기성세대가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대학생들의 경우 조부모와 함께 산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험이 없는 집단 보다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과 수강생의 학년의 경우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예절에 대한 중요도가 인식되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져 사회진출 및 혼인과 관련해서 평소에 어느 정도 지도를 받은것에 더하여 학교에서의 예절교육으로 더욱 태도·행동변화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가정과 학교교육의 연계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생활예절 교과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실천학문인 가정학과 교양과목(최정임 1995)으로서의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계열에 관계없이 모든 수강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수강전 관심도 등이 생활예절 수강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예절교육이란 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학교생활에 만족과 함께 교과목에 대한 관심이 수강후에 태도·행동변화에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질적인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강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습기자재의 구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Bem의 성역할 척도는 유의미하게 영향력 있는 척도가 아니었다. 생활예절, 매너는 인간관계에 필수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성역할 태도에 관계없이 남녀모두에게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절은 자아정체감 증대의 기능도 있으므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성인기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과 예절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1개의 여자 대학의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남녀 공학의 수강생을 비교연구 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도시와 지방대학 학생들간에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체계적인 예절교육의 방법과 수업지도 방법 개발이 필요하며, 생활예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정교한 척도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김득중 외 공저(1994),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2) 김득중(1997), 실천예절, 교문사.
- 3) 김옥희·오환일 외(1991), 생활예절, 서울: 양서원.
- 4) 김정신·노은호(1996), 초등학교 어린이의 예절교육,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 3집, 235-260.
- 5) 김정애·지금수(1992), 중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가정교육학회지, 제2권.
- 6) 김정옥(1995), 김정옥선생의 예절교육, 서울: 정우사.
- 7) 박계홍(1989), 전통문화의 전승실태와 계승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5집,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8) 박성진 외 편(1997), 우리나라 전례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 예문관.
- 9) 박성춘(1996), 인격교육의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10) 서병숙·왕석순(1996), '현대의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1호, 65-83.
- 11) 송복(1989), 예의 이념적 고찰, 「현대사회와 예」, 서울: 탐구당.
- 12) 숙명여자대학교 강의평가서, 1996.
- 13) 이길표(1994),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3호, 135-146.
- 14) 이두평(1987),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기초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15) 이민수 역해, 예기(禮己), 서울: 혜원출판사.
- 16) 이정우 외 공저(1996), 생활예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17) 이정우·김연화(1996), 대학의 생활예절교육 실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 -숙대생을 중심으로- 숙대 생활과학연구지, 창학 90주년 특집호, 3-24.
- 18) 이정우·이미선(1985), 가정관리 실습관 실습후의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2호, 1-13.
- 19) 이청림 편저(1992), 예절, 서울: 진화당.
- 20) 장경선(1992), 가정과 교육을 통한 예절 교육의 실태에 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21) 정몽화(1973), 예절, 서울:형설출판사.
- 22) 정정순(1995), 청소년의 예절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 23) 정지영·주영애·안현숙(1996),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전문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3집, 303-334.
- 24) 지영숙(1990), 가정교육의 현대적 과제(제 1보), 인문과학 20집, 성대 인문과학 연구소, 151-171.
- 25) 최경순(1996), 신세대 문화와 전통예절, 생활문화와 예절:숙명여대 창학 9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47-59.
- 26) 최정임(1995),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27) 홍숙자(1998),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1호, 157-168.
- 28) 홍승직 역해(1994), 논어(論語), 서울: 고려원.
- 29) 홍응선(1979), 예절의 교육, 예의 본질과 그 사회적 기능: 연세대 인문과학 연구소, 113-141.
- 30) 황경식(1995),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 31) Boykin, E.(1989), This Way Please, 김영만 편역 (1989), 에티켓 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 32) Post, E. L.(1975), The New Emily Post's Etiquette, Harper & Row, Publishers, Inc, 박홍석 역(1991), 서양식 예절,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회사.